



# 투쟁의 원칙을 분명히 하는 대의원대회가 되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임시대의원대회는 올해 임투 요구안을 확정하는 중요한 자리다.

사측은 경제 위기와 수익성 하락 속에서 올 초부터 통상임금-임금체계 개악안을 제시하며 우리를 우롱했고, 8/8 시행의 전제조건으로 UPH-UP과 단협 개악, 외주화 등을 압박했다.

김종석 집행부는 사측의 공격에 제대로 맞서지 못한 채 여러 후퇴와 양보를 시도해 조합원들의 불만을 사 왔다. 이번 임시대의원대회는 이런 잘못을 바로잡고, 투쟁의 원칙을 분명히 세우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 8/8 양보안 폐기는 조합원들의 의사가 반영된 결과 - 그러나 8/8을 차기 집행부로 이관한 것은 아쉽다

어제(13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김종석 집행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8/8 양보안이 폐기됐다. 이는 현장 조합원들의 광범한 반대 의사가 반영된 결과다.

그동안 현장공동투쟁 활동가들은 교섭장을 봉쇄하고 조합원 서명운동을 벌이며 양보안 폐기를 주장해 왔다. 화성공장에 서만 1주일 사이에 4천 명이 넘는 조합원들이 서명에 동참하며 불만을 표출했다.

이런 조합원들의 의사를 옹골게 반영하

려면, 대대에서 조건 후퇴 없는 8/8을 요구로 채택하고 이를 위한 투쟁 계획을 확정했어야 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전투적 현장 조직인 '금속노동자의 힘'이 생산량 보전(125만대)을 주장하면서 현장공동투쟁이 단일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고, 결국 대의원대회는 8/8 문제를 차기 집행부로 이관하는 결정을 내렸다.

차기 집행부 하에서 벌어질 16년 8/8 투쟁은 양보안을 폐기시킨 이번 대대 결정을 존중

해야 한다. 노동강도 강화, 휴일 축소 등 단협 개악에 반대한 조합원들의 열망을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3무 원칙을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하다. 생산량 보전 수준을 논하기 시작하면, 얼마만큼 양보를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고 조합원들의 투지도 값아먹을 수 있다. 생산량 보전이 아니라, 임금·노동조건 후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란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 5·12 신규채용 합의 폐기하고 정규직화해야 한다

5·12 신규채용 합의는 정몽구의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잘못된 합의다. 이는 지난해 9월 법원의 불법파견 판결 이후 정규직 전환의 꿈을 품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더구나 이는 더 많은 불법파견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현대차의 8·18 신규채용 합의가 기아차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말이다.

지난 몇 달 동안 압도 다수의 분회 조합원들이 잘못된 합의를 비판하는 연서명에 동참했다. 화성공장에선 항의 집회와 팻말 시위 등이 이어졌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분회는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민주노총 2차 총파업 일정에 맞춰 7월

15일 4시간 파업에 나설 준비를 하고 있다. 두 명의 분회 조합원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번 대의원대회는 10여 년을 처절하게 투쟁해 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 한다. 5·12 신규채용 합의를 폐기시키고, 불법파견 정규직화를 위한 투쟁을 결의하자.

## 신입사원 임금 차별을 폐지해야 한다

사측은 2011년 신규 입사자부터 단일 호봉제(균필만 적용, 3호봉 동결)를 적용했고, 여기에 더해 2013년 주간연속2교대제 시행 이후 신규 입사자부터는 2교대 전환수당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임금 차별은 신입사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화성공장의 1백72명 신입사원들

이 스스로 연서명까지 조직해 문제 해결에 나섰다. 정부는 청년취업난을 핑계 삼아 장기근속자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새누리당은 신입사원부터 직무성과급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노골적인 분열 정책들이다. 경제 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고스

란히 떠안기며 전체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고 하향평준화하려는 것이다. 야금야금 들어오는 차별과 이간질에 모든 노동자들이 단결해 맞서야 모두의 임금을 지킬 수 있다.

신입 사원과 고참 사원의 단결을 위해서도 투쟁을 통해 이중임금제의 시작인 신입사원 임금 차별을 해결해야 한다.



노동자 정치 신문

<http://wspaper.org>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 노동자 연대

를 구입하고 정기구독·후원해 주세요

대표전화 02-777-2792 | 기사제보 02-777-2791 | 팩스 02-6499-2791 | 이메일 ws@wspaper.org | 웹사이트에서도 구독신청이 가능합니다.

### <노동자 연대>를 함께 읽고 토론합시다!

<노동자 연대>는 곳곳의 주요 노동자 투쟁 소식과 운동의 전진을 위한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노동자 연대>를 읽고 토론할 동지들을 기다립니다. 연락주시시오.

문의 : 김우용(010-3092-9003)

# 이윤보다 안전이다! 현대차 1공장 투쟁에 연대를!

현대차 울산 1공장 11라인 조합원들이 10일간의 라인을 멈추고 사측에 안전사고 대책을 촉구하고 있다. 사측은 관리자들을 총동원해 수차례 폭력을 휘두르며 강제 라인가동을 시도했지만, 7월 13일 현재 1공장의 대의원·현장조직위원들이 통쾌하게 이를 저지하며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3일 1공장 11라인 엔진데킹 공정에서 일하던 신입사원은 작업 도중에 자신의 몸 쪽으로 쓰러진 장비를 피하다가 부상을 당했다. 만약 피하지 못했다면 끔찍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다.

그런데도 사측은 이것이 안전사고가 아니라 '장비고장 사고'일 뿐이라며, 안전 대책 협의도 없이 막무가내로 라인부터 돌리려 했다.

1공장 조합원들의 저항이 계속되자 다급해진 사측은 작업자가 피병을 부리고 일부 활동가들이 억지 투쟁을 벌인다는 비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해 4월부터 현장 투쟁을 전개해 온 강만석 전주위원회 의장(기아 지회장급)을 구속하며 찬물을 끼얹으려 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 강력한 현장 투쟁으로 안전사고가 발행하면 안전사고 대책회의를 소집해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합의해 온 것이 현대·기아차의 관행이었다. 작업중지권을 현장 투쟁으로 관철시켜 온 것



열흘 동안 라인을 세우고 안전사고 대책을 요구하는 현대차 1공장 노동자들

이다.

사측이 이런 관행을 본격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한 것이 2008년 경제 위기부터다. 현대·기아차 사측은 위기를 핑계 삼아 안전사고 대책회의를 아예 진행하지 않고 이에 항의하는 대의원과 활동가들을 무차별적으로 고소고발을 해 왔다. 수백 건이 넘는 고소고발과 손해 소송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안전은 무시되고 대

의원들의 권한도 대폭 축소돼 왔다.

사측은 경제 위기와 세계 자동차 산업의 경쟁 격화 속에서 어떻게든 우리 노동자들을 쥐어짜 최대한 이윤을 지키려 한다. 이를 위해 우리의 안전과 노동조건을 지켜 온 작업중지권을 비롯한 여러 관행을 약화시키고 생산 제일주의를 강요하려는 것이다.

울산 1공장의 투쟁은 현대·기아차 조합원들

의 안전을 지키는 중대한 투쟁이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안전은 내팽개친 채 돈벌이에만 혈안이 된 사측에 맞서 우리 스스로 안전한 일터를 만들자.

기아차 조합원들이 지지하고 연대를 보내자!

금번 대의원대회에서 연대를 위한 성명서 발표를 하면 울산 1공장 조합원들에게 커다란 힘이 될 것이다.

## 알바 투입 중단하고 신규인원 충원해야

화성지회 집행부는 지회 정대 결정 사항을 무시하고 '현장 고충'을 핑계 삼아 '알바생'을 투입했다.

지부 집행부는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5.12 합의를 해 분회 조합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고, 화성지회 집행부는 알바생 투입으로 뺨을 때린 것이다. 정말이

지 해도 너무 한다.

화성지회 집행부는 알바생 투입이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고 신입사원을 충원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그런데 신입사원 충원을 위한 진지한 노력과 투쟁을 전혀 하지 않고 '현실적 어려움'을 핑계 삼아 알바생을 투입하는 것은 정당

화 될 수 없다.

산학인턴 학생들은 한결 같이 취업이 되지 않아 기아차 알바를 선택한 것이다.

무언가 거창한 걸 배우러 공장에서 라인을 타고 있는 게 아니다. 알바 기간 6개월이 끝나면 군대를 가거나 다시 알

바 자리를 찾으며 졸업을 미룬다고 한다. "몇 개월 일해 학비 벌었으면 되죠"라는 알바 학생의 말이 가슴을 미어지는 이유다.

금번 임시대회에서 알바 투입을 철회하고 신입사원 충원을 위한 투쟁을 결의해야 한다.

민주노총 7·15 2차 총파업, 제조공투본 7·22 파업 결정

## 기아차 노동자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박근혜는 거듭 "구조개혁은 필수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하며 공격의 고삐를 죄고 있다. 임금파괴제 도입과 임금체계 개악, 통상임금-노동시간 관련법 개악, 해고요건 완화, 파견 확대 등 정부의 공격은 하나같이 우리 기아차 노동자들의 목

을 겨누고 있다.

민주노총은 7월 15일 2차 총파업, 양대노총 제조공투본은 7월 22일 파업을 결정했다.

그런데 기아차지부 집행부는 '쟁의권 확보 사업장'만을 참가 대상으로 정한 금

속노조 중립 결정을 핑계로 파업 동참을 회피하는 결정을 내렸다. 사내하청 분회가 이날 4시간 파업 방침을 결정하고 조직에 나섰는데도 말이다.

활동가들은 7·15 총파업 집회에 적극 참가하고, 7·22 파업이 불발되지 않

도록 조직해야 한다. 지금 현장 분위기가 4·24 파업 때 같지만은 않지만, 정부·여당의 위기와 분열을 이용해 투쟁을 조직하는 것이 앞으로 계속될 박근혜의 노동자 공격에 맞선 투쟁의 밑거름을 쌓는 길이다.